



제목	이슬람 국가에서의 비무슬림의 권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도서출판 알림
발행일	2006. 9. 5.
저자	살레 H. 알아이드 최영길 옮김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221
ISBN 또는 ISSN	978-8991180093

내용 요약

이 책은 이슬람교에서 ‘계약의 사람들’ 또는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권리와 그들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명예와 재산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연구한 책이다. 저자는 비무슬림에 대한 이슬람교의 이러한 태도가 이슬람교의 다음과 같은 기본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첫째,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존엄성 보호이며, 둘째, 종교의 자유 보장이다. 저자는 이슬람과 무슬림들이 인권을 거스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문제제기한다. 저자는 이슬람에서 규정하는 인권과 세계 인권선언의 비교연구에 기초해 볼 때, 이슬람만큼 인권을 충실하게 법으로 선언하고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종교나 법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슬람국가의 비무슬림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계약의 사람들’이며, 다른 하나는 ‘보호받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계약의 사람들에는 기독교인, 유대교인, 조로아스터교인이 포함된다고 한다. 보호받을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취업이나 사업상 이슬람 국가에 온 비무슬림을 가리킨다. 이 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권리를 갖는 동시에, 각 그룹은 각각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권리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일반적인 권리는 8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 보존을 위한 권리,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종교적 법률을 준수할 권리, 공정성에 대한 권리,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충분한 대우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이다.